

프렐루드
PRELUDE

빨리 졸업하고
아카데미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등교 안 하던 내가
다시 학교 가기로 했다

早く卒業して学園からオサラバしたいので不登校だったボクが再登校を決意する



이츠키 슈지

樹 修次

Illustration

쿠라츠 유에

倉津 ゆえ

イチキヤット
ICHICAT

빨리 졸업하고 아카데미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등교 안 하던 내가 다시 학교 가기로 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평소보다 일찍 등교해 버린 아침의 교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고 하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거의》 아무도 없다. 즉, 나 말고 다른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표현이 맞다.

조용한 공간 속에, 딱딱 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섞여 있다 — 바로 그거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풍기는 단정하게, 정신은 청결하게.”

……또 멋대로 기동했네.

“스테아, 아까부터 그 선거 연설 같은 분위기는 뭐야?”

“교내 방송의 자동 번역 샘플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아이는 학원에서 특별 지원 대상 학생에게만 대여하는 스마트 글래스에

내장된 지원 내비게이터 AI 《스테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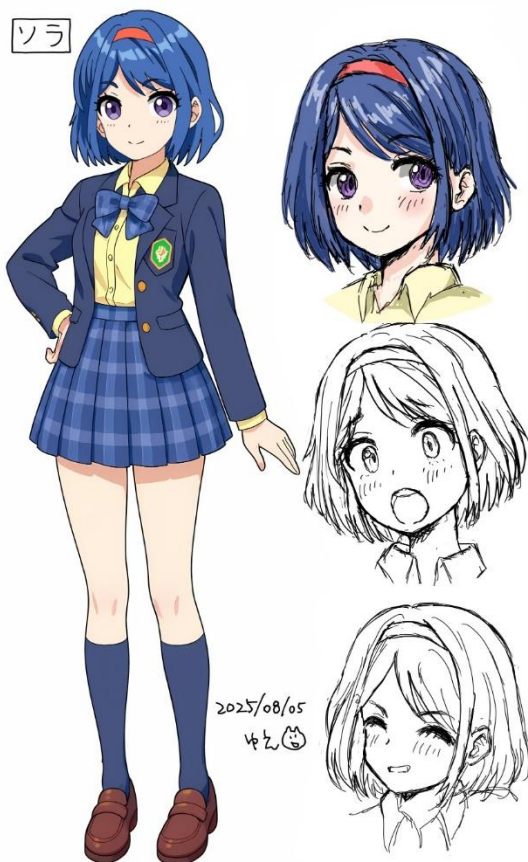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감정을 가지지 않은 프로그램이 내 마음을 알 리가 없고, 원래는 내가 기동 요청을 하지 않는 한 등장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인지 필요 없는 타이밍에 슬쩍 나타나서 솔직히 대응에 조금 곤란하다.

이러는 사이에 몇몇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왔다.

오늘도, 언제나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가——

“그런데, 오늘은 아직 소라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스테아가 가슴 앞에서 홀로그램 팔 같은 것을 끼고 말한다. 조금 쓸쓸해 보이는 것은 착각일까.

“예전에처럼 늦잠 자서 지각하는 거 아닐까? 그 애, 교실에서도 자주 졸잖아”

“정보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정기 컨디션 평가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실에 들렀다가 등교한다고 합니다”

“흠…….”

그 ‘정기 컨디션 평가’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니 그 애, 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좀 무기력해 보이는 날도 있다. 뭔가 관계가 있는 걸까.

아니, 신경 써 봐야 소용없지. 오늘은 소라가 없으니까, 조용한 점심을 즐길 수 있겠다. 오랜만에 매점에서 하무타마마요빵이라도 사서, 인기 없는 곳에서 느긋하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마트

글라스가 ‘피롱’ 하고 소리를 냈다.

※ 오늘은 풍기 점검 모드가 실시됩니다.
학생의 복장 · 태도 · 표정 등의 확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기 점검?”

“네. 학원 인프라 시스템 스케줄에
따르면, 오늘부터 《후우키》에 의한
정기 점검 모드가 시험 운용됩니다”

“후우키って, 그 전에 말했던 그 AI
탐재 로봇?”

“네. 교내 풍기 유지를 위해 설계된
유닛입니다. 학생의 《비인간적 행동》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비인간적이라니…… 어떤 기준으로?”

“참고로 오늘 아침 당신의 무표정률은
97.4 퍼센트. 거의 로봇이네요”

그러니까, 스테아, 제발 마음대로
스캔하지 말아줄래?

그때, 글라스에 붉은 경고가 떴다.

‘뵉’ …… ※ 대상: 감정 결핍의 징후
감지

“잠깐…… 기다려, 기다려! 누가 감정

결핍이라는 거야?”

“아마도, 당신입니다”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 관찰 대상: C-207 / 대응 레벨: 경과
관찰

“……설마, 표적 지정된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일상
행동의 기록이 의무화될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괜히 《재조정 처리 대상》

같은 소리라도 들으면 엄청 귀찮아질
텐데?

“걱정 마십시오! 일상 행동 기록이
의무화되더라도,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전혀 위로가 안 돼.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풀가동되기
시작할 때, 소라가 바쁘게 교실로
들어왔다. 여전히 산만한 발걸음이다.

“안녕! ……어? 오늘은 너, 일찍 왔네”

“그냥. 우연히”

“헤에, 드물다”

그녀의 이름은 소라.

통칭 《폭탄소녀》. 물론 내
마음속에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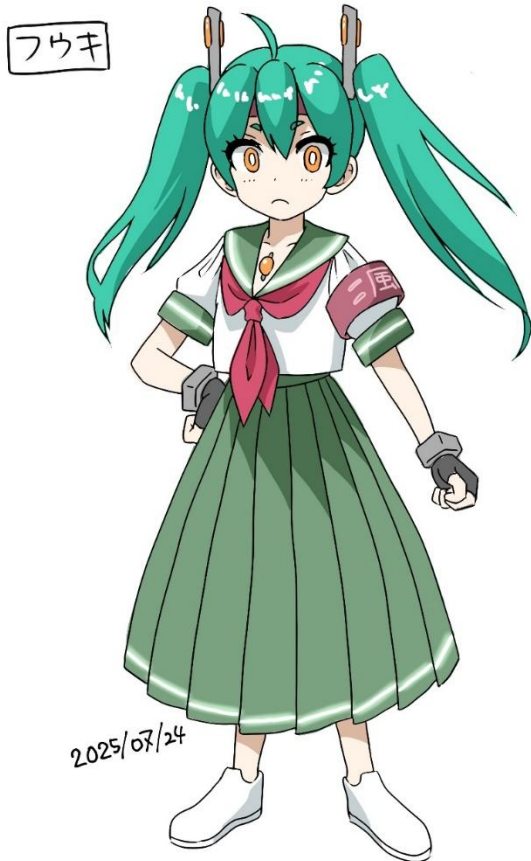
그녀는 매일 하찮은 것을 찾아서는
혼자서 소재로 삼아 즐기고, 혼자서
웃어넘긴다.

게다가 반 친구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그걸 나에게만 떠넘기고, 늘
휘둘리게 만든다.

공기처럼 있고 싶은 나로서는 조금
성가신 존재다.

뭐, 나쁜 애는 아니지만.

“소라, 컨디션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아니~ 아침에 좀 늦잠 자서. 보건실에
들렀더니, 잠깐만 붙잡혀 있었거든.
그래도 건강, 파이토 잇파쓰!”
그렇게 말하며 소라는 가라테의
정권지르기 자세를 해 보였다.



……뭐야 그게.

“아, 맞다 맞다! 운동장에서 후우키라는 걸 봤는데, 군용 로봇 같아서 진짜 위험한 녀석이었어! 눈에서 빔 같은 것도 쏠 것 같았고!”

“게다가, 주위에 드론이 몇 대나 뽕뽕 날아다니면서 ‘라라’ 같은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

응, 소라, 요즘 여고생이 그런 오래된 로봇 애니메이션을 왜 알고 있는 걸까?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위험한 녀석한테 표적이 된 것 같아.”

“진짜로? 그거 엘리트 마크잖아! 완전 위험한 녀석이잖아! 스탯 상승 보너스 받는 거!”

그건 게임 얘기인가요?

“아무튼 도망가자! 바로 근처에도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었어! 매점 뒤쪽,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서 수영장 건물 뒤까지 빠져나가면 세이프 판정 구역일 거야!”

“…일 거야’라니…… 너 정체가 뭐야?”

“소라 씨의 오늘 자유 행동 계획을 분석했습니다. 회피 루트 예측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왜 스테아까지 신나 있는 거야?”

그 후, 두 사람과 한 홀로그램의 교내 전력 질주가 시작되었다.

비상계단을 단숨에 내려가, 기재실 뒤를 지나, 체육 창고를 통과하고——

가는 길에 들른 다도실에서는 김 너머로

“정숙”이라는 눈총을 받았고,

궁도장에서는 날아온 화살이 간신히 머리 위를 스쳤다.

평소에는 제대로 된 동아리 활동도 안 하는 학교면서, 이럴 때만 괜히 눈에 띄네.

“아~ 진짜 청춘같은 느낌이야! 아오하루 완전 최고!”

“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소라?!”

“후우키 서버시스템 드론 E-4 접근 중. 회피 불가능입니다!”

“에? 뭐? 큰일 큰일 큰일!”

마침내 막다른 길.

뒷마당 구석 그늘에서, 둘이 함께 몸을
웅크렸다.

※ 경고: 관찰 대상 C-207 확인. 풍기
위반 가능성 있음. 처치를 시작합니다.
끝났다……

그 순간——

“상황을 중단합니다.”

익숙한 차가운 목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졌다.

뒤돌아보니, 교무부장 선생님이 서
있었다. 고요하게,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본 유닛의 판단에 오차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의 행동은
풍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 확인. 점검 프로세스
중단. 유닛 철수합니다.

드론이 조용히 하늘로 날아가 멀어졌다.

“.....뭔가, 살았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마크당하는
불운함, 오늘도 최고네요!”

조용해, 스테아.

“두 분 모두,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은 그것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람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운 존재다.

“아~ 스릴 만점이었네! 근데 말이야, 이런
것도 가끔은 괜찮지 않아?”

“괜찮다니, 뭐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

“.....”

도대체 뭐하는 애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건, 등교를 거부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던 내가 이 학원에 다시 등교하게 된 후의 어느 하루의 이야기.

아직 쌀쌀했던 봄, 그날로부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는지,

아니면 오히려 《아직》 한 달 조금 넘게 지나지 않은 건지……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졸업하고, 이 학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다, 나는.

지금은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 소원이 이뤄질지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빨리 졸업하고 아카데미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등교 안 하던 내가 다시 학교 가기로 했다 — 본편에 계속)